

盆栽 [4]

담쟁이 덩굴



- 포도과 - 學名 : Parthenocissus tricuspidata

한국분재연구원  
(0343-43-6367)  
원장 안형재



돌담이나 바위 또는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라며 우리나라 전역(全域)에 걸쳐 자생(自生) 하는 낙엽만경(落葉蔓莖)으로써 길이 10m 이상 자라고 흡착근(吸着根)과 잎이 서로 반대 쪽으로 나며(對生) 잎은 줄기의 마디마다 한 개씩 어긋나게(互生) 난다. 또한 잎에는 잎자루(葉柄)가 길게 늘어지듯 착생하며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이 참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낙엽 때에는 먼저 긴 잎자루 끝에 있는 잎몸(葉身)이 떨어지고, 다음에 잎 자루가 떨어진다.

분재(盆栽)로써 많이 이용되는 것은 담쟁이 덩굴이 변하여 잎이 오그라진(矮化) “용신 담쟁이 덩굴”이다. 담쟁이 덩굴은 원래 덩굴성 식물이나 분재로 배양하면 덩굴이 목성화(木性化)되므로 튼튼하고 굵게 기르면 자연히 굴곡이 생겨 피부가 고아(古雅)한 형태미(形態美)를 더 해 준다.

1. 번식법(繁殖法)

실생(實生), 삽목(挿木), 높이 떼기(取木)에 의해 번식한다. 삽목의 경우는 뿌리 뻗음(發根力)이 왕성하므로 큰 줄기를 꺾꽂이해도 활착이 잘된다.

삽목은 봄에 새싹이 트기 전에 줄기를 20cm로 잘라서 삽상(挿床)에 반쯤 묻히게 꽂고 반 그늘로 약간 서늘하게 해주면 20일쯤 지나서 발근한다.

2. 배양토(培養土)

2% 정도 크기의 입자(粒子)를 쓰되 잘 섞은 부엽토를 30% 가량 섞는게 좋다.

3. 물주기

보통의 담쟁이 덩굴은 잎이 비교적 크므로 수분의 증산량도 많기 때문에 물기가 다소 모자라면 위조(萎凋)의 현상이 나타나며 잎이 타는 경우가 있다.

잎이 타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가 없으므로 한 여름에는 반 그늘에서 기르도록 한다.

4. 비료주기

줄기를 빨리 굵게 하기 위해서는 3월과 9월에 각각 알거름(置肥)을 주고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10일 간격으로 9월 말까지 물 거름을 준다. 다만 완성목의 경우에는 과비(過肥)하게 되면 잎이 커지게 되므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5. 병충해

각지 벌레가 줄기에 붙어 즙액을 흡수하므로 말라 죽게 된다. 발견되면 “수프라 사이드” 800배액을 살포한다. 그리고 월동기에 석회유황 합제를 11월과 2월에 각각 1회씩 뿌려 준다.

6. 알맞은 수형(樹形)

모양목이나 반 현애형으로 기르는 것이 좋다. 어린 나무인 경우에는 덩굴을 빨리 비대(肥大)시키기 위하여 가을까지 줄기를 길게 뻗도록 기르지만 수형이 갖추어진 나무는 흐트러 지지 않도록 자주 해주어야 전정(剪定)한다. (다음호는 소사나무분재가 연재됩니다)